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조영국 · 박창석 · 전영옥

협성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 협성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 협성대 도시계획공학과 강사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과연 농촌어메니티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 그 인식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어메니티 개념의 하위 차원들을 추출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이러한 하위차원들이 인식의 판단기준으로 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위차원들간의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거주 배경이나 농촌거주경험 그리고 농촌거주의향 등에 따라 위의 하위차원들에 대해 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분석결과로부터 학술적 논의와 일반인의 인식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문제는 연구의 기본 출발점인 동시에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어메니티 계획이 결국 농촌의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그 자원 발굴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I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척도 설계

문헌검토를 통해 농촌어메니티는 주거환경 조건으로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농촌어메니티에는 주거 만족도와 밀접한 ‘생활환경’ 차원을 기본으로 ‘역사문화성’, ‘자연친화성’ 혹은 그것에 의해 표출되는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중요한 차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농촌어메니티에는 도시어메니티와 달리 단순한 역사문화성이 아니라 목가적 이미지 때로는 ‘고향’ 이미지와 연결되는 ‘농촌다운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어메니티와 대비해서 그 자체가 개성이고 차별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어메니티 기준(또는 차원)들을 추출하고 그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scale)들을 선정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된 개념의 차원 이외에 좀더 구체적인 하위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 등에서 장소의 어메니티 환경 평가기준들을 참조하였다. 또 각 기준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추출하기 위해 Craik(1971), Palmer 등(1976), Kim(2000) 그리고 Halfacree(1993) 등이 장소이미지 혹은 장소 평가와 관련된 형용사 단어들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들 어메니티 개념에 함축된 차원들에 맞춰 배열하였다(표 1). 물론 단어 추출과정에서도 어메니티 개념과의 관련 여부를 고려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각 사항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중요도 평가는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소이미지 평가에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두 형용사 표현을 짝으로 제시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의미분화척도기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 개념에 맞춰 설계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단어 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의미분화척도기법 대신에 리커트 척도 기법을 이용한 문항 설계를 하였다.

상위 차원	하위 차원	척도
농촌 분위기 (rural sentiment)	농업의 비중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내세울만한 농산물 혹은 특산물이 있다 -농사가 마을의 주소득원이다
	전통성	-마을이 유서가 깊다 -초가, 한옥 등 옛날 가옥들이 남아 있다 -마을 안길, 농로, 개천 등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 문화	-관혼상제 때나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서로 비슷하다 -마을제사, 마을놀이 등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마을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경관 (scenic attribute)	취락의 형태	-집이 많지 않다 -소음이 적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집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자연친화적	-공기, 물이 깨끗하다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 곤충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관미	-마을이 아늑하다 -경치가 수려하다 -논밭, 숲, 산, 하천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전망이 탁 트였다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생활여건 (basic need)	접근성	-동네에 차량통행이 수월하다 -도시와 멀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도로는 넓고 잘 닦여 있다
	편의성	-생활품을 동네서 살 수 있다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
	여가활동기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가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표 1> 농촌어메니티 척도 설계

한편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설문은 도시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에서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3개면, 충청남도 홍성군의 3개면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의 2개면에서 실시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자에 의해 현지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장(里長)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집단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2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유효설문매수는 263매이다. 이 가운데 도시민의 설문지는 131매이다.

III 분석결과

1.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

1) 1차 요인

36개 문항 가운데 사전 검토에서 문제가 되는 문항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척도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요인의 추출은 주축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고 요인과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회전은 사각회전(promax, k=4)을 실시하였다.

최초요인추출에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9개 추출되었고 이 9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3.30%를 설명한다. 아래 <표 2>은 요인과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형태행렬(factor pattern matrix)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에는 요인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16 이상인 것만 나타내었다. 이 상관계수 하한 기준은 모든 문항이 적어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상관계수 값이다¹⁾. 추출된 요인들의 의미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요인 1 : '여가활동기회 · 편리한 생활여건'
- 요인 2 : '자연친화적'
- 요인 3 : '전통적 농촌분위기'
- 요인 4 : '농업의 비중'
- 요인 5 : '경관미'
- 요인 6 : '취락형태'
- 요인 7 : '공동체 문화'
- 요인 8 : '입지조건'
- 요인 9 : '대중교통여건'

2) 2차 요인

상위차원을 추출하기 위해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요인 분석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최초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을 사각회전(promax, k=4)을 시켜 요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2차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7.9%를 설명한다(표 2 참조).

2차 요인	요인형태계수 및 1차 요인 (1차요인분석에서의 설명량)	설명변량
1	0.707 요인1, 여가활동기회, 편리한 생활여건(24.40)	37.47
	0.887 요인2, 자연친화적(10.0)	
	0.824 요인3, 전통적 마을분위기(6.03)	
	0.870 요인5, 경관미(4.50)	
2	0.868 요인4, 농업의 비중(4.50)	17.97
	0.376 요인6, 취락형태(3.81)	
	0.694 요인7, 공동체문화(3.58)	
3	0.797 요인8, 입지조건(3.25)	12.46
	0.815 요인9, 대중교통의 여건(3.23)	
		67.90

<표 2> 2차 요인 분석 결과

1) 문항 '집이 많지 않다'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요인은 요인 4인데 이때의 상관계수 값이 0.316이다. 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유의미한 상관계수의 하한이라고 간주하였다.

2차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7.4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여가기회·편리한 생활여건', '자연친화적', '전통적 마을분위기' 그리고 '경관미' 등의 1차 요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2차요인 1은 상당히 복합적인 하위개념이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앞에서 논의한 어메니티 개념의 핵심적 내용, 즉 생활여건의 편리, 자연친화, 역사문화성,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 2차요인은 농촌어메니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2차요인들은 각각 '농촌적 분위기'와 '접근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농촌어메니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아마도 어메니티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은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지칭하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의미하는 농촌어메니티를 판단하는데는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응답자들은 농촌어메니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2차요인 1을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2차요인 1에는 '여가활동기회를 비롯한 생활여건의 편리성'을 포함하여 '자연친화' 그리고 '경관미', '전통적 마을분위기' 등 상당히 성격이 다른 하위차원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농촌어메니티를 판단하는데 '생활조건의 편리성'과, '자연친화성', '경관미', '역사문화성'의 하위차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응답자들은 생활조건의 편리성을 희생하면서 자연친화성, 경관미, 역사문화성 등 목가적 이미지만으로 농촌어메니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농촌 어메니티 인식 비교

거주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차원은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요인1), '경관미' 차원(요인5),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요인3),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4) 등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차원들은 '농업의 비중' 차원을 제외하고 모두 분당·일산 거주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한 차원들이다. 특히 분당·일산의 주민들은 비록 '자연친화' 차원, '경관미' 차원 혹은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의 중요도도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도시주민들은 농촌주민들에 비해 교육, 의료, 여가기회 등 각종 생활여건이 훨씬 양호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다른 거주지역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 도시민이 자연친화적, 역사문화성이 풍부한 농촌어메니티를 회고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재 누리는 편리한 생활여건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취하려는 의사는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농촌 응답자들은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4)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원에 있어서 도시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의 비중' 차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응답자들의 직업적 배경을 고려해볼 때 쉽게 예상되는 결과라 하겠다. 나아가 화성의 응답자와 홍성·화천의 응답자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과 '대중교통'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는 화성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홍성·화천의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도시적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화성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친화 차원이나 경관미 그리고 역사문화 차원 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들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이 농촌어메니티를 인식함에 있어서 '여가활동기회·편리한 생활여건', '자연친화', '전통적 농촌분위기', '농업의 비중', '경관미', '취락형태', '공동체문화', '입지조건', '대중교통여건'의 9가지 개념적 하위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위차원은 다시 3개의 상위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압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편리한 생활여 건	자연친 화	전통	농업의 비중	경관미	취락형 태	공동체 문화	입지조 건	대중교 통
분당·일산(A)	3.59	4.09	3.69	3.25	3.83	2.90	3.42	3.05	3.82
화성(B)	2.91	3.92	3.20	3.66	3.19	3.14	3.36	3.06	3.27
홍성·화천(C)	3.22	3.78	3.23	3.67	3.35	2.87	3.21	2.98	3.80
전체 평균	3.31	3.97	3.45	3.45	3.54	2.97	3.36	3.04	3.66
F값 ⁴⁾	16.10 ^{**}	3.83 [*]	12.71 ^{**}	11.71 ^{**}	14.88 ^{**}	1.95	1.03	0.18	6.47 ^{**}
A,B	■		■	■	■				■
LSD검증 A,C	■	■	■	■	■				
B,C	■								■

- 주 1) 각 요인의 유의미한 문항들 척도값을 한산하여 구한 평균값
 2) *, **는 각각 유의도 0.05미만과 0.01미만에서 F값이 유의한 것을 나타냄.
 3) ■ 는 유의도 0.05미만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인정됨을 의미.

<표 3> 응답자 거주지역별 요인변수군 평균 척도값¹⁾

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상위 차원은 '생활여건의 편리성', '자연친화', '경관미', 전통적 농촌분위기' 등의 하위차원들로 구성된다. 즉 이 상위차원에는 사실상 농촌어메니티의 주요 개념적 차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농촌어메니티에 있어서 자연친화성이나 경관미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동시에 생활여건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사례 연구에 국한해서 판단해볼 때, 일반인들은 농촌어메니티를 인식할 때 생활여건,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등의 중요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응답자의 거주집단별로 위의 하위차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거주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차원은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요인1), '경관미' 차원(요인5),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요인3),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4) 등으로 '농업의 비중' 차원을 제외하고 모두 분당·일산 거주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한 차원들이다. 특히 분당·일산의 주민들은 비록 '자연친화' 차원, '경관미' 차원 혹은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의 중요도도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이 자연친화적, 역사문화성이 풍부한 농촌어메니티를 회귀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재 누리는 편리한 생활여건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취하려는 의사는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앞의 두 연구결과로부터 농촌어메니티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혹은 목가적 농촌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학술담론과 일반인들의 현실적 인식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발견된다. 일반인들도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목가적 농촌이미지' 등이 농촌어메니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동시에 '편리한 생활여건'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어메니티 인식의 구조 분석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과 함께 '생활여건'이 하나의 상위차원을 형성하고,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민들이 오히려 생활여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데서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자연친화성' 혹은 '역사문화성'과 '편리한 생활여건' 사이에 존재하는 trade-off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